

독일어 3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의미

진정근(단국대)

1. 들어가는 말

대명사는 서양 고대로부터 문법적 언어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 언어학에서도 텍스트언어학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본격적이고 상세한 연구에는 아직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독일어 3인칭 대명사가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조건에서는 무리없이 사용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대명사 기술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아나포라 Anaphora와 다익시스 Deixis의 정의와 이를 둘러싼 문제인 두 현상의 분리와 통합에 대하여 논의한다.¹⁾ 마지막으로 3인칭 대명사의 의미를 기술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3인칭 대명사의 사용

대명사가 명사(정확하게 말하자면 명사구)를 대신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미 '대명사'라는 용어 자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관하여 큰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독일어 3인칭 대명사가 소위 다익시스로 쓰일 경우에 어떠한 조건하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대명사 또는 부사류를 기술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인 아나포라와 다익시스가 과연 서로 분리되어야만 하는 현상인지 또는 아나포라를 다익시스의 하위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1) Deixis, Deiktikon, Deiktika 그리고 Anaphora, Anaphorikon, Anaphorika 등의 용어는 현재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에 가까이 오는 번역어가 없어 임시로 음역하여 사용한다.

다루기로 한다.

2.1. 대명사 사용의 제한²⁾

3인칭 대명사가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그 사용을 제한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로는 청자가 화자에 의해 의도된 지시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대명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적 정보의 양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표현에 의지하여 대상을 지시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대명사 사용의 제한이 지시대상 자체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이러한 제한에 걸려 그 사용이 많은 부분 회피된다. 특히 대명사를 이용한 3인칭에 대한 다의시스지시의 경우 대명사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다른 사물과는 달리 대명사 사용상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발화의 현장에 3인칭 대명사로 지칭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대명사사용은 당사자에게 동등한 대화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치 않는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이러드나 다른 언어공동체의 소속원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대명사의 사용이 예외에 어긋나지 않고 허용된다.

2.2. 대명사 사용의 여러 상황

대명사가 사용에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도 실제 발화의 현장에서 문법적으로나 사회규범으로 보아 적절한 사용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를 여기서 알아보기로 한다.

2) 대명사 사용의 제한과 사회규범에 어긋나서 사용되는 대명사의 교정 Korrektur에 대하여 여기서 다룰 수 없다(자세한 내용은 J. Jin, 1998: 27-34 참조).

상황 1: 화자가 지시대상을 제시, 소개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대명사가 다익시스지시에 사용되는 프로토타입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흔히 제스처라든가 장소부사와 같은 언어표현도 동반되어 나타난다. 또한 사용되는 대명사는 강세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 어느 집의 창문을 깨트리게 됐다. 집주인이 손에 공을 들고 나와 아이들에게 누가 그랬는지를 묻는 말에 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다른 아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한다.

Er war's/ist's. (C.-P. Herbermann, 1994: 97)

상황 2: 지시대상이 눈에 현저히 뛰는 상황

지시대상 자체가 대화 상대자들의 주목을 끄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지시대상이 갖는 이목 *Auffälligkeit*이 제스처와 강세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또한 대명사가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지시대상이 지시의 상황에서 또는 의사소통의 파트너들의 의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해당 대명사를 발화하는 순간에 대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시행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타지마할을 산보하면서 “*Mann! Er scheute bestimmt keine Kosten.*”이라는 발화에서 대명사 *er*에 제스처가 수반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세는 놓여 있지 않다.

상황 3: 대화파트너가 지시대상에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한 지시대상에 대화파트너가 함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대명사에 강세를 줄 필요가 없고 제스처도 불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가 산책길에 우연히 운동장을 지나는데 때마침 장대높이뛰기선수가 연습에 열중한 것을 구경하게 되었다. 이 선수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높이뛰기의 횡목을 넘게 되는데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Er hat's geschafft!*”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발언이

라고 볼 수 있다. 지시대상이 사물인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백화점의 장난감코너에서 이런 저런 장난감을 보고 있다고 상정하자. 아버지는 아들이 처음에는 로봇트 *Roboter*를 다음에는 나무로 만든 기차 *Holzisenbahn*를 또 다음에는 모형비행기 *Modellflugzeug*를 손에 쥐는 것을 본다. 이때 아버지는 차례로 “*Gefällt er/sie/es dir?*”라고 아들에게 물어본다.

상황 4: 지시대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금까지의 상황설정은 대부분 지시대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공간에 나타나지 않은 대상들을 지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의사소통의 파트너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거나 친척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한 번 지각된 대상이 다익시스에 의해 지시되는 일도 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시끌시끌한 교실 앞에서 선생님이 오시는 지를 망보면서 하는 말이 “*Er kommt!*” (K. Brugmann, 1917: 13)인데 대명사 *er*의 지시대상이 학생들 주위의 공간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 그 동생이 농담으로 건네는 “*Er kommt heute um fünf Uhr*” (Th. Kalepky, 1928: 80)라는 말에서 청자의 의식에는 지시대상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er*가 누구를 지시하는지는 자명하다. 여기서 사용되는 대명사는 강세를 동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대명사의 발화순간에 그 지시대상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청자를 위해 강세를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 5: 지시대상을 상기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강세가 없는 3인칭 대명사로 다익시스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때 지시대상은 해당 대명사를 발화하기 전에 지각되었으나 발화의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느 모임에서 부인이 바로 전에 어떤 여자와 유난히 흥분하여 대화를 나눴던 남편에게 그 여자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뒤 “*Na, gefällt sie dir?*”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황에서의 대명사 *sie*의 사용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강제없는 3인칭 대명사의 사용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대명사의 문법성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이다. 아나포라로 쓰이는 대명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선행사의 문법성을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다익시스의 경우에 예를 들어 탁자 Tisch를 지시함에 있어 왜 일반적으로 (*der Tisch*→) *er*로 하고 (*das Möbel*→) *es*로는 하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즉 대명사의 문법성은 지시대상의 명사적 표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명사적 표현은 과연 또 어떻게 결정되는가하는 이차적인 과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프로토타입의미론 Prototypensemantik에서 말하는 'basic level term'이라는 개념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대하여는 G. Kleiber, 1993: 58ff. 참조). 우리는 'basic level'이 보통의 발화상황에서 여러 지시대상을 명사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P. Bosch, 1983와 F. Cornisch, 1996 참조).

2.3. 3인칭 대명사 사용의 기본조건

2.2.에서 기술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3인칭 대명사가 다익시스로 사용될 때에 충족되어야하는 지시대상과 관련된 기본조건을 추출할 수 있다. 먼저 지시대상이 의사소통에서 1인칭과 2인칭으로 지칭될수 있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라는 조건 Neutralität der Referenten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에는 지시대상의 확인성 Identifizierbarkeit der Referenten이 문제가 된다. 대명사가 정확하게 사용되려면 해당 지시대상을 청자가 어떤 경우에라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지시대상의 확인성은 화자가 대명사를 발화하면서 청자를 위해 확보해야만 하는 조건이다. 이를 확보하는 길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화자는 청자가 지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조처를 취해야하며, 청자는 이 조처에 의존한다. 그래서 화자는 지시대상을 제스처를 사용하는 등의 제시행위 Präsentationshandlung를 통하여 청자에게 의도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황 1 참조). 두 번째로는 화자의 부가적인 도움이 없어도 지시대상이 어려움없이 확인되는 경

우이다. 이때 지시대상을 확인하는 근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상의 확인성이 해당 교신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는 지시대상이 없고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존재하는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상황 4와 5 참조). 다음으로는 청자가 이미 지시대상에 자신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일이 있고 (상황 3 참조), 마지막으로 지시대상 자체의 두드러짐에 의해 확인이 용이한 경우이다 (상황 2 참조). 이 세 경우에는 화자가 대명사를 발화하는 것 이외에 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적인 조치가 불필요하다.

3. 아나포라와 다익시스

흔히 3인칭 대명사가 텍스트나 문장의 범위 내에서만, 즉 아나포라로만 사용된다는 견해는 그 동안 별다른 검토없이 받아들여져 왔었다. 간혹 다익시스에 동원된 대명사가 관찰되면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되었다. 우리는 위에서 3인칭 대명사가 어떠한 조건에서 다익시스지시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명사뿐만 아니라 부사와 같은 다른 언어표현의 언어학적 기술의 틀을 제공하는 개념인 아나포라와 다익시스에 대한 정의와 이 둘의 관계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1. 아나포라와 다익시스의 개념규정

아나포라와 다익시스에 대한 개념정의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Blühdorn, 1995 참조).³⁾ 전통적으로 보면 아나포라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일정한 선행사를 전제하여 이 선행사와 아나포리콘이 언어외적인 지시대상을 공동으로 지시하는 현상을 일컬으며, 다익시스는 발화행위의 상황에서 존재하는 또는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일정한 대상을 발화상황의 여러

3) 영어권에서의 다익시스연구는 필모어 (Ch. J. Fillmore, 1972; 197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라이온스 (J. Lyons)도 빼놓을 수 없다. 라우 (G. Rauh, 1978; 1984)는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요소들과의 의존상태에서 지시하는 현상을 지칭하여 지시의 현장성과 지시 행위시 화자의 상황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나포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대략 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텍스트언어학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하르벡 R. Harweg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아나포라 현상을 텍스트를 정의하고 텍스트구조를 조명하는 데까지 이용하였다. 다익시스연구는 현대에서는 브루크만 K. Brugmann이나 훗설 E. Husserl 등의 연구를 종합한 뵐러 K. Bühler에서 그 출발점을 잡고 있으며 하르벡도 독일어 다익시스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나포라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비교적 논란이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기술하는 여러 모델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J. Jin, 1998: 77-92 참조). 하지만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명사가 과연 텍스트의 경계를 넘어서 선행사와 공지시관계 *Koreferenzrelation*에 있는가 아니면 텍스트내에서만 지시를 수행하는가하는 점이다. 물론 전통적으로나 현대언어학에서 주류를 이루는 견해는 선행사와 아나포리콘으로 쓰이는 대명사가 공지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선행사와 대명사와의 관계인데 이점을 두고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하르벡은 아나포라대명사가 선행사를 대신하여 사용된다는 대용관계 *Substitutionsverhältnis*를 주장한다. 차우더 (G. Tschauder, 1989: 122)는 아나포라대명사가 이중관계 *birelational*에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Das Bild da kenne ich, ich habe es bereits auf einer Ausstellung gesehen*”이라는 예문에서 대명사 *es*는 한편으로는 다익시스로 쓰이는 선행사 *das Bild da*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wiederaufnehmen*, 다른 한편으로는 *es*가 외부세계의 그림을 다익시스적으로 지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시관계는 선행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아나포라대명사가 선행사를 텍스트다익시스적으로 지시한다는 의견은 브라운뮐러 (K. Braunmüller, 1977)와 헤르버만 (C.-P. Herbermann, 1988b)

4) 공지시관계에 있는 아나포라외에 어휘의 의의관계에 따른 의의동일성 *Sinn-identität*과 언어기호의 형식에 기초한 형식동일성 *Formidentität*에 의해 성립하는 아나포라도 있다 (M.-E. Conte, 1981: 125 참조).

이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만 아나포라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3.2.2. 참조). 보쉬 (P. Bosch, 1983: 41)는 지시대상을 텍스트에 처음 도입하는 표현과 아나포라대명사가 공지시관계에 있지만 이 둘 언어표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를테면 “*John looks pale, and Fred thinks he is sick*”에서 *John*과 *he*는 외부세계의 한 대상을 공지시하는 관계에 있지만 *John*과 *he* 사이에는 어떠한 텍스트내적 관계도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지시관계가 성립하는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될 가설은 칼마이어 W. Kallmeyer 등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선행사와 아나포라대명사의 공지시관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오직 텍스트 내에서의 연결성 *Konnexität*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W. Kallmeyer et al., 1980: 214ff. 참조).

다익시스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정의를 내놓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익시스연구에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르벡의 정의를 살펴보자.

“다익시스는 어떤 사태 또는 그 사태에 포함된 요소들의 공간적, 시간적 또는 인칭적 장소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언어표현들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칭은 사태를 지칭하는 발화의 생산자와 수신자의 공간적, 시간적 또는 인칭적 장소들(부분적으로는 또한 위치들)과의 관련속에서 일어난다.

Deixis ist [...] die Funktion bestimmter sprachlicher Ausdrücke, die lokalen, temporalen oder personalen Örtter von Sachverhalten oder Sachverhaltselementen in Relation zu den lokalen, temporalen oder personalen Örttern (und zum Teil auch Positionen) der Produzenten und/oder Adressaten (oder Rezipienten) der die Sachverhalte bezeichnenden Äußerungen zu bezeichnen.” (R. Harweg, 1990: 177)

여기서 장소라 함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기하학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하르벡의 정의의 기본구조를 밑바탕으로 해서 헤르버만 C.-P. Herbermann은 지시이론⁵⁾의 틀 안에서 다익시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익시스는 특정한 (공간적, 시간적, 인칭적 등등의) 대상들에 대한 한 정적이고 확실성을 보장하는 지시인데 이러한 지시는 발화의 시점에서 화자가 처한 위치에서 파생하는 각각의 상응하는 요인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해당 대상들을 지칭하는 (부분적으로 제스처가 수반되는) 언어표현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Deixis ist die definite und Identifizierbarkeit gewährende Referenz auf bestimmte (lokale, temporale, personale o.a.) Gegebenheiten vermittels solcher (z.T. durch Gesten unterstützter) sprachlicher Ausdrücke, die die betreffenden Gegebenheiten in (ausschließlicher) Abhängigkeit von den jeweils entsprechenden Faktoren der Befindlichkeit des Äußerungsträgers zum Zeitpunkt der Äußerung bezeichnen.” (C.-P. Herbermann, 1988b: 53)

위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시대상의 한정성과 청자가 지시의 상황에서 지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성이 도입되어 발화순간에 있어서의 화자의 상황의존성과 더불어 다익시스 정의의 주요 특질을 이루고 있다.

3.2. 아나포라와 다익시스의 분리론과 통합론

아나포라와 다익시스 이 두 현상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하는가 또는 서로간에 어느 한쪽에 귀속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여러 각도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관여하는 학자들의 근거와 최종목적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3.2.1. 분리론

분리론의 대열에 서있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근거와 접근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몇몇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견해만 살피기로 한다.⁶⁾

-
- 5) 헤르버만은 지시를 한정적 지시 definite Referenz와 비한정적 지시 indefinite Referenz로 양분하고 한정적 지시는 다시금 고유명사지시 Eigennamenreferenz와 서술어구지시 Referenz der Kennzeichnung 그리고 다익시스로 구분한다 (C.-P. Herbermann, 1988a 참조)

먼저 할리데이 M.A.K. Halliday와 하산 R. Hasan은 『Cohesion in English』에서 엑소포라 Exophora와 엔도포라 Endophora라는 개념으로 두 현상의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⁷⁾ 엔도포라는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지시를 일컬으며 엑소포라는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 둘의 차이는 지시를 위해 사용되는 언어표현의 해석을 위한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있다. 말하자면 엔도포라는 정보의 소재가 텍스트 안에, 엑소포라는 텍스트 밖의 외부세계에 놓여있으므로 이 둘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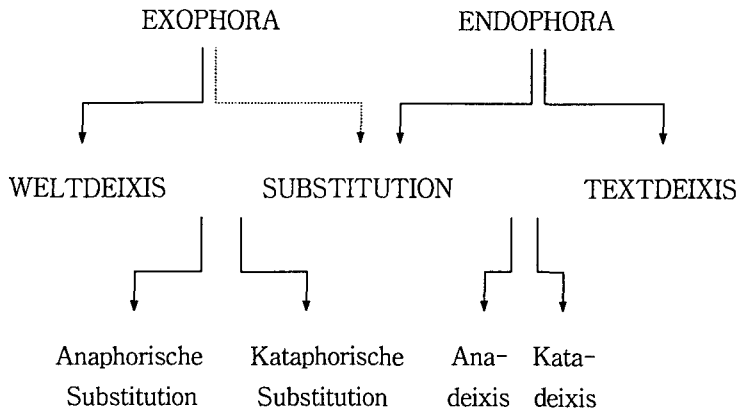
분리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중의 한 명은 하르벡이다. 그는 다익시스를 현실 또는 세계다익시스 Real- oder Weltdeixis와 텍스트다익시스 Textdeixis로 양분하고 이를 아나포라와 대립시킨다. 하르벡에 의하면 아나포라와 다익시스는 지시의 가변성 referentielle Variabilität이 해소되는 방식에 따라서 구별된다. 아나포리카는 텍스트의 선행사에 의해서, 다익티카는 상황적 규정소에 의해 가변적인 지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텍스트다익티카의 경우에는 다익시스대상 Deixisobjekt이 텍스트의 부분인데 반해 아나포리카는 선행사 자체를 지시하지 않고 그 선행사가 관련을 맺는 대상들을 지칭하므로 이 둘 사이에는 공지시 관계가 성립하지만 텍스트다익티카와 그 지시대상들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또한 서로 기능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R. Harweg, 1978; 1990 참조).

분리론에서 등장하는 전통적인 설명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구분과 설명방식을 들고 나온 이들은 카니지우스 P. Canisius와 지타 G. Sitta이다. 이 둘은 종래의 아나포라 대 다익시스의 구별을 지양하고 새로

6) 이밖에도 두 현상의 분리에 찬성하는 저자들로서는 디발트 (G. M. Diewald, 1991), 엘리히 (K. Ehlich, 1983), 쎄홀츠 (K. Sennholz, 1985), 차우더 (G. Tschauer, 1990) 등이 있는데 분리의 논리가 서로 맥락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7) 저자들은 'Deixis' 대신 'Exophora'라는 용어를 'Endophora'는 'Anaphora'와 'Kataphora'의 상위개념으로 사용한다.

운 구분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아나포라를 하르벡이 도입한 말짜임새적 대용 syntagmatische Substitution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이와 더불어 세계다익시스, 텍스트다익시스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이 세 개념은 서로 어떤 점에서 구분되고 이들 사이에 공통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먼저 말짜임새적 대용과 텍스트다익시스의 공통점은 두 경우에 있어서 각각 선행사와 지시대상을 발견을 위한 방향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Wie wir weiter oben gesehen haben, ...*”과 “*Auf dieses Problem soll weiter unten ausführlicher eingegangen werden*”에서 텍스트다익티카 *weiter oben*과 *weiter unten*이 지시대상이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Es war einmal ein König, der hatte drei Töchter*”에서 아나포리콘으로서의 *der*에서도 지시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현상은 대용성 Ersetzbarkeit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텍스트다익티카는 그들의 지시대상을 대신하여 사용되지 못하지만 말짜임새적 대용어 syntagmatisches Substituens는 그들의 선행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P. Canisius/G. Sitta, 1991: 147 참조). 세계다익시스는 벨러가 말하는 데몬스트라치오 아드 오쿨로스 demonstratio ad oculos로 이해된다. 이 세 현상은 다시금 엑스포라와 엔도포라의 차원에서 다음의 도표와 같이 정리된다(P. Canisius/G. Sitta, 1991:148).



위의 그림에서 엑소포라와 대용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연결된 이유는 대용에 이용되는 대명사가 직접적으로 외부세계의 지시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사를 경유하여 지시한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3.2.2. 통합론

현대 다익시스연구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뵐러는 잘 알려져 있듯이 언어적 가르킴을 데몬스트라치오 아드 오쿨로스 에트 아우레스 demonstratio ad oculos et aures, 다익시스 암 판타스마 Deixis am Phantasma⁸⁾, 아나포라의 세 가지 양태로 나누고 있다(K. Bühler, 1934/1982: 80f. 참조). 뵐러는 아나포라로 쓰이는 언어표현들에서도 가리킴의 계기가 발견된다고 보고 있으며 아나포라 현상도 대체적으로 가르킴말이 다익시스행위에서 이용하는 동일한 작동양식의 도움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뵐러의 말을 직접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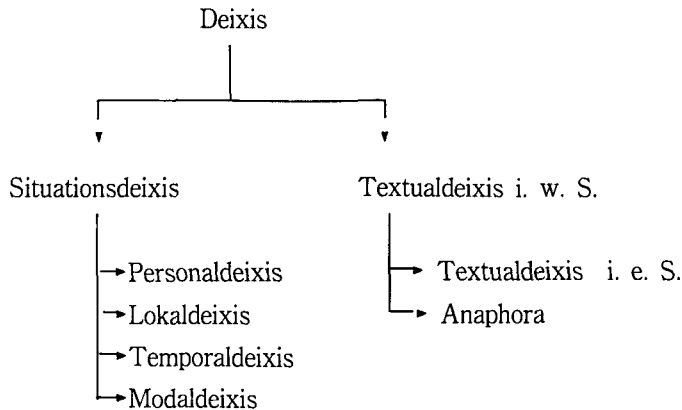
“가리킴기호들은 [아나포라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외근적에서 풀려나) 가리킴의 내부적 기능을 떠맡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호들은 문맥 안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지만 그들의 팔이나 화살표는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시야에서 찾아야하는 사물들을 직접 가리키지 않는다. 이 기호들은 그들 자신이 자리하는 곳에서는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것을 찾을 수 있는 문맥위 위치나 문맥의 부분을 가리킨다.

Die alten Zeigzeichen verschwinden nicht, sondern übernehmen (vom Außendienst entlastet) eine innendienstliche Funktion des Zeigens. Mit einem Wort: sie stehen immer noch da im Kontexte, aber ihre Arme oder Pfeile weisen *nicht mehr direkt auf Dinge*, die man mit den Augen im Blickfeld suchen soll und findet, sondern sie deuten auf Kontextstellen und Kontextstücken hin, wo man findet, was am Platze der Zeigzeichen selbst nicht geboten werden kann.” (K. Bühler, 1934/1982: 339)

8) 다익시스 암 판타스마는 지타가 그의 학위논문 『Deixis am Phantasma. Versuch einer Neubestimmung』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언급은 아나포라와 다익시스가 활동하는 환경과 각각의 지시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동일한 기제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따라서 아나포라는 다익시스의 범주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헤르버만은 아나포라를 다익시스 정확하게는 텍스트다익시스의 하위범주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선 그가 다익시스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자.



헤르버만은 먼저 다익시스를 상황다익시스 Situationsdeixis⁹⁾와 넓은 의미의 텍스트다익시스로 양분한다. 후자는 다시 좁은 의미의 텍스트다익시스와 아나포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텍스트다익시스는 장소부사(이를테면 *oben*, *unten* 등)나 시간부사 (*früher*, *später* 등)가 사용되는 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익시스지시의 범위가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아나포라는 텍스트 안에서 일어나는 지시현상이지만 외부세계의 대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C.-P. Herbermann, 1988b: 74f. 참조).

헤르버만(C.-P. Herbermann, 1988b: 75ff.)이 아나포라를 텍스트다익시스

9) 이 용어는 콘테 (M.-E. Conte, 1981)가 사용하고 있다.

의 하위현상으로 간주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는 아나포라가 다익시스정의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2의 다익시스정의 참조). 아나포라의 경우에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행위가 일어나는 텍스트의 위치 내지는 그 발화행위 자체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이에 의존하여 동일한 텍스트의 다른 특정한 위치 또는 언어적 단위를 지시한다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언어적 현상이 다익시스로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판단은 과연 그 현상에서 오리고 Origo¹⁰⁾가 발생하는가에 달려있다. 아나포라의 경우 화자는 발화행위에서 (상황다익시스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의 시공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의 형성과정에서의 화자의 위치 내지는 발화행위의 위치는 그 자체의 오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나포라가 성립되려면 단순히 지시동일성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나포라 표현들과 선행사들이 맺는 관계도 필수적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바로 이 둘의 관계를 텍스트다익시스적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논거로는 많은 언어에서 아나포리카와 다익티카가 대부분 동음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헤르버만에 의하면 이러한 동음성은 아나포라의 다익시스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라고 해석된다는 것이다.¹¹⁾

4. 3인칭 대명사의 의미

3장에서는 아나포라와 다익시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가운데 이 논문과 관련된 문제인 두 현상의 분리와 통합을 주장하는 견해를 짧게나마 검토해 보았다. 사실 이 문제는 양측의 견해가 너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각 주장의 논거가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양측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조정하고 절충시키는 일은 성공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된

10) 이에 대한 설명과 논란은 쟈홀츠 (K. Sennholz, 1984: 11-28)가 잘 정리해 놓고 있다.

11) 통합론을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 브라운뮐러 (K. Braumüller, 1977)도 주목할만하다.

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익시스와 아나포라로 사용되는 3인칭 대명사의 경우 그 의미기술에서 어떤 통합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대명사의 의미는 어휘의미론에서는 거의 부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명사도 언어기호의 일원이라는 의견에서 출발하면 분명히 어떤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기술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선 대명사의 의미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헤링어 H. J. Heringer의 다음의 언급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동일한 대명사로 한 번은 이 것을 그 다음에는 저 것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명사의 성질은 대명사의 의미가 이러한 사용과 더불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명사의 의미는 바로 이처럼 변화하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Die Eigenschaft der Pronomen, daß man mit dem gleichen Pronomen einmal auf dies, dann auf jenes referieren kann, heißt nicht, daß die Bedeutung des Pronomens sich damit ändere: Die Bedeutung des Pronomens besteht gerade darin, daß das wechselnde Referieren möglich ist.”(H.J. Heringer, 1978: 86)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명사의 의미를 기술하려면 우선 대명사가 어떠한 조건에서 문법적으로 적확하게 사용되는가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사용방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요인들을 선정하여 추상화시키는 과정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다. 2.2에서 기술된 독일어 3인칭 대명사가 다익시스로 사용된 경우들을 강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 Jin, 1998: 176 참조).

	인칭대명사 1 <i>er/sie/es</i>	인칭대명사 2 <i>ér/sie</i>
지시대상	사람과 사물	사람
강세	비강세	강세

문법성 실제성	문법성에 준거함	실제성에 준거함
지시대상 관련상황	초점집중	초점집중 또는 청자의 주의력 유도
제스처	수반되지 않음	수반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음

흔히 아나포라에 이용되는 3인칭 대명사는 대부분 그 사용의 방식과 조건을 다익시스로 사용되는 그 것과 비교하면 위의 인칭대명사 1에 상응되고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3인칭 대명사 kontrastives anaphorisches Pronomen¹²⁾는 인칭대명사2의 조건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아나포라대명사의 몇가지 사용양식에 대해서는 J. Jin, 1998: 99ff. 참조).

이러한 아나포라와 다익시스를 포괄하는 3인칭 대명사 사용의 상황에서 언어적인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먼저 강세 없이 쓰이는 인칭대명사 1의 경우:

“3인칭 대명사의 특수한 경우인 기본적으로 강세없이 쓰이는 3인칭 대명사 *er/sie/es*는 해당 제삼자적 존재를 지시대상으로 지칭한다. 이때 청자는 지시대상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말하자면 청자는 지시대상과 대명사가 발화되는 순간에 이미 주워진 자기자신에게 명확한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적으로 매개된- 관계에 있다.

Das primär unbetonte Personale der dritten Person *er/sie/es* bezeichnet als Spezialfall dieser Pronomina die betreffende

12) “Vor kurzem hatte ich Besuch von einem befreundeten Ehepaar und ihrem kleinen Kind. Beiläufig habe ich denen meine neue Computer-Anlage gezeigt. *Er* und *sie* konnten nichts damit anfangen; aber **es*/das Kind wußte gleich, worauf es ankam.” (C.-P. Herbermann, 1994: 110)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대명사는 강세를 지니며, 그 지시대상은 사물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고 성은 문법성이 아닌 실제성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J. Jin, 1998: 103f. 참조).

neutrale Entität jeweils als ein Referenzobjekt, zu dem der Adressat eine im Augenblick der Äußerung des Pronomens schon vorgegebene, ihm selbst evidente - gegebenenfalls verbal vermittelte - Beziehung hat.” (C.-P. Herbermann, 1994: 117)

다음으로는 강세가 수반되어 쓰이는 3인칭 대명사 2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강세있는 3인칭 대명사 *ér/sie*는 -더 특수하게- 성표기에 상응하는 제삼자나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의인화된 개체를 교신상황의존적인 한정적 지시의 대상으로 지칭한다. 이 경우에는 청자와 지시대상과의 관계가 미리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Das **b e t o n t e P e r s o n a l e** der dritten Person *ér/sie* bezeichnet hingegen -spezieller- jeweils ein neutrales, der jeweiligen Sexus-Markierung entsprechendes personales oder personifiziertes Individuum als Objekt einer kommunikationssituationsabhängigen definiten Referenz, ohne die notwendige Bedingung eines vorgegebenen adressatenseitigen Objektbezugs.” (C.-P. Herbermann, 1994:117)

그러면 이러한 두 종류의 3인칭 대명사의 의미는 이 둘을 아우르는 하나의 일반적인 의미로 통합될 수 없는가 하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가 좀더 이 두 대명사의 공통점을 묶어내면 다음과 같은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3인칭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문법성 (내지는 실제성)에 상응하는 제삼자적 존재들을 지시대상으로 지칭하는데, 이 지시대상들은 청자가 그 기능을 인식할 수 있는 교신적 발화상황의 부문들/요인들과 일정한 관계에 처해있다. 짧게 말하자면 이들은 교신상황의존적인 한정적 지시의 대상들이다.

Die betreffende Pronomina der dritten Person bezeichnen im allgemeinen jeweils neutrale, dem jeweiligen Genus (bzw. Sexus) entsprechende Entitäten als Referenzobjekte, die in einer bestimmten

Relation zu bestimmten, für den Adressaten in ihrer Funktion erkennbaren Komponenten/Faktoren der aktuellen kommunikativen Äußerungssituation befindlich sind, oder kürzer: als Objekte einer kommunikationssituationsabhängigen definiten Referenz.” (C.-P. Herbermann, 1994: 116f.)

위에서 살펴본 독일어 3인칭 대명사 *er/sie/es*의 의미에서 다익시스 현상이 의미 구성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현상이 대명사를 비롯한 여러 언어표현들의 의미 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인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블위도른은 “다익시스는 어휘소가 갖고 있는 불변의 성질이 아니다 *Deixis ist keine invariante Eigenschaft von Lexemen*”(H. Blühdorn, 1993: 47)라고 말하고 있어 다익시스를 의미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다익시스를 대명사의 의미 기술에 결정적인 성분으로 간주하는 의견도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라우를 들 수 있다. 라우(G. Rauh, 1984: 25)는 다익시스표현 *deiktische Ausdrücke*의 의미를 인덱스 의미 *indexikalische Bedeutung*와 상징의미 *symbolische Bedeutung*로 나눈다.¹³⁾ 여기서 인덱스 의미는 토큰 *token*의 의미를, 상징의미는 타입 *type*의 의미를 말한다. 다익시스표현의 인덱스의미는 발화행위에서 확정되므로 언어사용의 현상에 속하고, 상징의미는 한 표현의 모든 사용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의미이므로 이의 기술은 언어체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대명사의 상징의미는 무엇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 라우에 의하면 대명사를 포함한 모든 다익시스표현의 상징의미는 다익시스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하나는 화자의 자기중심성 *Egozentrität*이고 다른 하나는 다익시스대상이 공간적으로 확정된다는 사실 *Lokalismus*이다. 그 외에도 다익시스의 차원 *deiktische Dimension*이 의미구성의 한 성분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아나포라로 사용되는 언어표현들의 의미기술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라우는 아나포라를 다익시스에서 파생된 하나의 형식 즉 사용의 한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나포라의 해석에서 다익시스

13) 이러한 구분은 피어스 Ch.S. Peirce의 언어기호론과 이를 계승 발전시킨 벅스 A.W. Burks에 근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J. Jin, 1998: 169ff. 참조)

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화되어 버리고 오직 통사적 범주의 분석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나포라에서는 선행사와 아나포라로 쓰이는 다익시스표현이 동일한 통사적 범주인 것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기술의 방식은 다익시스와 아나포라를 의미론적 현상으로 파악함은 물론 이 두 현상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¹⁴⁾ 따라서 가령 대명사 *er/sie/es*를 다익시스로 쓰이는 *er/sie/es*와 아나포라로 쓰이는 *er/sie/es*로 각각 다른 어휘소로 상정하여 동음이의어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필자는 이에 반대하여 다익시스가 여기서 문제되는 대명사의 핵심의미가 아니며 (상황)다익시스와 아나포라는 대명사의 의미를 구성하는 내재적 성질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발화의 상황에서 자신과 청자 그리고 지시대상이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히 이용하는 의사소통의 처리방식 *kommunikative Verfahren*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어휘소에 동음이의어를 가정하게 되는 불필요성을 절약하게 되어 의미기술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5. 맺는 말

독일어 3인칭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아나포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 사용의 빈도수로는 아나포라의 이용률이 다수를 이루겠지만 언어학의 이론수립에서 확률적 다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많은 경우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수의 경우뿐만 아니라 흔히 예외라고 간주되는 언어현상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더욱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이 논문은 대명사와 관련해 아나포라와 다익시스는 일정한 언어표현에 의미론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과 관련된 화

14) 블룸필드 (L. Bloomfield, 1933/1979: 251)도 아나포라와 다익시스로 쓰이는 대명사의 의미를 구별하여 기술한다.

용론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 두 현상은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교신상의 방식으로 간주되며 이 두 방식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의해 어느 하나가 선택된다고 보여진다.

흔히 다익시스와 아나포라로 사용되는 3인칭 대명사는 동음이의로 처리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일한 의미의 기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가능성의 핵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신상황에의 의존성 *Kommunikationssituationsabhängigkeit*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Bethke, I.(1989), *der, die, das* als Pronomen, iudicium, München.
- Bloomfield, L.(1933/1979), *Language*, Allen & Unwin, London, Boston, Sydney.
- Blühdorn, H.(1993), "Deixis und Deiktika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In: *Deutsche Sprache* 21, 44-62.
- Blühdorn, H.(1995), "Was ist Deixis?", In: *Linguistische Berichte* 156, 109-142.
- Bosch, P.(1983), *Agreement and Anaphora. A Study of the Role of Pronouns in Syntax and Discourse*, Academic Press, London.
- Braunmüller, K.(1977), *Referenz und Pronominalisierung. Zu den Deiktika und Proformen des Deutschen*, Niemeyer, Tübingen.
- Brugmann, K.(1904), *Die Demonstrativpronomina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Eine bedeu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 Teubner, Leipzig.
- Brugmann, K.(1917), *Der Ursprung des Scheinsubjekts 'es' in den germanischen und romanischen Sprachen*, Teubner, Leipzig.
- Bühler, K.(1934/1982),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Mit einem Geleitwort von Friedrich Kainz*, Fischer,

Stuttgart, New York.

- Canisius, P./G. Sitta(1991), "Textdeixis: Zum Verhältnis von Deixis, Substitution und Anaphora", In: E. Klein/F. Duteil/K.H. Wagner (Hg.), Betriebslinguistik und Linguistiksbetrieb. Akten des 24. Linguistischen Kolloquiums, Universität Bremen, 4.-6. September 1989. Band 2. Niemeyer, Tübingen, 143-152.
- Conte, M.-E.(1981), "Textdeixis und Anapher", In: Kordikas/Code 3, 121-132.
- Conte, M.-E.(1986), "Textreferenten und Typen anaphorischer Wieder-aufnahme", In: W. Heydrich/J.S. Petöfi (eds.), Aspekte der Konnexität und Kohärenz von Texten, Buske, Hamburg, 1-15.
- Cornish, F.(1996), "'Antecedentless' anaphors: deixis, anaphora, or what? Some evidence from English and French", In: Journal of Linguistics 32, 19-41.
- Diewald, G. M.(1991), Deixis und Textsorten, Niemeyer, Tübingen.
- Ehlich, K.(1983), "Deixis und Anapher", In: G. Rauh (ed.), Essays on Deixis, Narr, Tübingen, 79-97.
- Fillmore, Ch. J.(1972), "Ansätze zu einer Theorie der Deixis", In: F. Kiefer(ed.), Semantik und generative Grammatik, Athenäum, Frankfurt am Main, 147-174.
- Fillmore, Ch. J.(1975), Santa Cruz Lectures on Deixis,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Indiana.
- Halliday, M.A.K./R. Hasan(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London.
- Harweg, R.(1979),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2. Auflage, Fink, München.
- Harweg, R.(1978), "Deixis und variable Referenz", In: Zeitschrift für Phonetik, Sprachwissenschaft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31, 132-142.
- Harweg, R.(1990), "Textdeixis", In: ders., Studien zur Deixis, Brockmeyer, Bochum, 177-212.

- Herbermann, C.-P.(1988a), "Der kommunikative Bezug zur Wirklichkeit",
In: ders., Modi referentiae. Studien zum sprachlichen Bezug zur
Wirklichkeit, Winter, Heidelberg, 11-45.
- Herbermann, C.-P.(1988b), "Entwurf einer Systematik der Deixisarten.
Mit einer exemplarischen Analyse des Systems der Likaldeiktika im
Deutschen", In: ders., Modi referentiae. Studien zum sprachlichen
Bezug zur Wirklichkeit, Winter, Heidelberg, 47-93.
- Herbermann, C.-P.(1994), "Die dritte Person. Pronomina und Definitheit",
In: P. Canisius/ders./G. Tschauer(Hg.), Text und Grammatik.
Festschrift für Roland Harweg zum 60. Geburtstag, Brockmeyer,
Bochum, 89-131.
- Heringer, H. J.(1978), Wort für Wort. Interpretation und Grammatik,
Klett-Cotta, Stuttgart.
- Jin, J.(1998), Pronominagebrauch und Pronominabedeutung. Zur Prag-
matik und Semantik der Personalpronomina der dritten Person und
der Demonstrativpronomina,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Dissertation Universität Münster WS 1998/99.
- Kalecky, Th.(1928), Neuaufbau der Grammatik als Grundlegung zu einem
wissenschaftlichen System der Sprachbeschreibung, Teubner, Leipzig,
Berlin.
- Kallmeyer, W./W. Klein/R. Meyer-Hermann/K. Netzer/H.J. Siebert (1980),
Lektürekolleg zur Textlinguistik. Band 1: Einführung, Athenäum,
Königstein/Ts.
- Kleiber, G.(1993), Prototypensemantik. Eine Einführung, Übersetzt von
M. Schreiber. Narr, Tübingen.
- Rauh, G.(1978), Linguistische Beschreibung deiktischer Komplexität in
narrativen Texten, Narr, Tübingen.
- Rauh, G.(1984), "Aspekte der Deixis", In: Sprachwissenschaft 9, 23-84.
- Sennholz, K.(1985), Grundzüge der Deixis, Brockmeyer, Bochum.
- Sitta, G.(1991), Deixis am Phantasma. Versuch einer Neubestimmung,

Brockmeyer, Bochum.

Tschauder, G.(1989), Textverbindungen. Ansatz zu einer Makrotextologie,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fiktionaler Texte, Brockmeyer, Bochum.

Zusammenfassung

Gebrauch und Bedeutung der Personalpronomina der dritten Person im Deutschen

Jin, Jeongkun(Dankook Univ.)

In diesem Aufsatz haben wir uns zunächst damit beschäftigt, unter welchen Bedingungen die Pronomina der dritten Person korrekt verwendet werden. Doch davor haben wir uns darauf eingelassen, wann die Pronomina Restriktionen unterliegen. Die Situationen, in denen die betreffenden Pronomina sowohl grammatisch, als auch kommunikativ korrekt gebraucht werden, sind 1) Präsentation des Referenzobjekts durch den Sprecher, 2) Auffälligkeit des Referenzobjekts, 3) Gemeinsame Fokussierung der Kommunikationspartner auf Referenzobjekte, 4) Warten auf das Referenzobjekt und 5) Erinnerung an Referenzobjekte. In diesen Situationen werden verschiedene Faktoren, z.B. die Lage des Referenten im aktuellen Sprechsituation, für den Pronominagebrauch mitgewirkt.

Seit der Antike bilden die Pronomina einen Gegenstand der linguistischen Untersuchung. Seitdem werden sie nach unterschiedlichen Aspekten betrachtet und beschrieben. Vor allem wird der Weg der Forschung zu den personalen, aber auch demonstrativen Pronomina durch zwei Begriffe, nämlich Deixis und Anaphora, maßgeblich

bestimmt. Im Hinblick darauf haben wir die Frage diskutiert, ob das Phänomen der Anaphora unter dem der Deixis bzw. der Textualdeixis subsumiert werden kann oder nicht. Man kann dafür plädieren, daß Anaphora und Deixis kommunikativ verschiedene Phänomene darstellen könnten. Wir neigen allerdings dazu, daß es eine semantische Integrationsmöglichkeit der Anaphora in die (Textual)Deixis gibt.

Nach dem Durchmustern verschiedener Verwendungsweisen und theoretischer Positionen haben wir uns mit der Semantik der Pronomina befaßt, die in der Pronominaforschung bisher weitgehend vernachlässigt worden ist. Dabei stellte sich heraus, daß die Bedeutung des betreffenden Pronomen vor allem durch die Angabe der Kommunikationssituationsabhängigkeit beschrieben werden kann. Damit wurde ein Versuch unternommen, die festgestellten verschiedenen Gebrauchsweisen semantisch zu systematisieren und somit auf eine einheitliche Semantik zurückzuführen.